

문화 강좌 모범 사찰을 가다

# 백화점에 왜 가? 절에 가야지

리본아트 은공에 오카리나 요가... 백화점 문화센터 못지않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 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사찰 문화강좌는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사찰과 불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사찰과 불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 2001년 문화센터를 개설한 인천 용화선원은 현재 70여개의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어 웬만한 일반 문화센터보다 낫다는 평가다. 특색 있는 문화 강좌를 개설한 사찰을 살펴본다.



인천 용화선원 문화센터의 서예 강좌.

“자세를 바르게 하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 마시세요.”

1월 3일 찾아간 인천 용화선원 문화센터 선단공 수업 현장. 10여 명의 회원이 선단공 특유의 몸동작과 단전호흡을 익히는데 열중하고 있다. 선단공은 산중에서 전래돼 온 것으로,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심신수련법이다. 문화센터에서 2년째 선단공을 배우고 있는 김민정(43)씨는 “선단공을 배우고 나서 추위도 덜 타게 되고 체력도 한결 좋아진 것을 느낀다”며 “조만간 남편도 함께 배울 예정”이라고 말한다. 지도강사 유인영(51)씨는 “선단공을 오래 수련하면 자세가 바르게 되고 호흡도 깊어진다”고 말한다.

선단공 수업이 끝나자 서예 강좌가 이어진다. 회원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글씨를 연습하거나 경전을 사경하면, 지도강사 이순월씨가 한 명씩 서예 지도를 한다.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써 내려가는 모습이 수행자 못지않게 진지하다.

이씨는 “서예와 마찬가지로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강좌 대부분이 취미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려져 있다”고 말한다. 서예 강좌 후에는 다도강좌와 비즈공예, 중국어 교실 등이 쉴 새 없이 진행된다.

용화선원 문화센터가 2006년 겨울학기엔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70여개, 수강인원만 500명에 이른다. 2001년 겨울 처음 문화센터가 문을 연 이후 계절마다 빠지지 않고 이어 온 강좌라 용화선원 신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웃종교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여름

## 인천 용화선원 70여 강좌 500명 수강 지역 주민, 이웃종교인들에게도 인기

겨울학기에는 방학을 맞은 유아·초등생을 위한 도예·암산·동화구연·과학교실 등의 강좌를 보강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인다.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과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특강도 운영하고 있다.

용화선원 문화센터 윤현숙(40) 실장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절에 첫 발을 들여 놓기 어려운 초심자들도 문화센터의 문은 쉽게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를 들으며 익숙해진 사람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불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조금씩 불교를 가깝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톨릭 신자였던 한 회원은 문화센터에 다니며 불교에 호감을 갖고 개종을 하기도 했다.

도심 사찰들의 문화강좌는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라도 사

찰을 찾게 되고, 강의 후 법당에 들러 기도나 참선을 하는 등 짬짬이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전곡비구니화관 범룡사 역시 문화강좌를 들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찰음식 연구가로 유명한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을, 한국명선자인회 이사장 혜성 스님이 다도를, 연화정사 주지 정명 스님이 꽃꽂이 강의를 하는 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지도를 맡아 인기가 높다.

기존의 서예 요가 다도 등의 강좌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강좌를 개설한 사찰들도 있다. 김포 용화사는 서양악기인 오카리나를 배울

수 있는 ‘오카리나반’을 운영 중이다.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피리의 일종인 오카리나는 음색이 맑고 아름다운 찬불가나 명상음악 연주에 어울리는 악기다. 수강생들은 부처님오신 날이나 송년음악회 등에서 갖고 다니는 솜씨를 뽐낼 수 있다.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운영하는 문화강좌도 이색적이다. 불교문화를 토대로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단청·불화·서각·한국차 등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용화선원 문화센터 윤현숙 실장은 “규모가 작은 사찰이라면 불자들이 원하는 문화강좌 한두 가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이나 무종교인들도 부담 없이 사찰을 찾아오게 된다”며 “강좌를 통해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포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여수형 기자 snocopy@buddhapia.com

## 전문가 강의·수강료 저렴 등 장점 “지속적 운영으로 포교효과 얻어야”



도심 사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포교의 장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사진은 인천 용화선원 문화센터의 선단공 강의 현장.

● 눈에 띄는 사찰 문화강좌 ●

지역	사찰명	개설 강좌	연락처
서울	조계사	다도 요가 불화 서예 찬불가 꽃꽂이 단소	(02)732-2183
	불광사	꽃꽂이 동양화 서예	(02)417-2551
	봉은사	다도 태극권 불교영어강좌 참심림행복프로그램 (월드뷰 예비부부교실 총은아버지교실 등) 요가 천연화장품 민화 다도 불화 꽃꽂이 서양화 도자기 사찰음식 서예	(02)3218-4822
부산	전곡비구니화관 범룡사 능인선원	꽃꽂이 서양화 서예 피아노 일러 영어 필드	(02)3411-8103
	통도사	다도 성보박물관강좌 (불화 단청 서각 한국차 중국차) 삼광문화연수 다도 선무도 선요가 영어템플스테이 가이름 사찰요리 총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다도 다도 어린이다도 어린이참선	(02)571-2988
대구	관음사	다도 성보박물관강좌 컴퓨터 불교기초영어 서예 합창 다도 수지침	(05)382-7182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산악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합창 요가 니르바나문화교실불화 서경 다도	(05)1808-7111 (05)1508-0345 (05)1253-9687 (05)1291-1176
광주	원각사 덕림사	다도 요가 사군자 중국어	(05)3474-8228
	진토사	다도 요가 사군자 중국어	(05)3792-1353
울산	경교 용화사	오카리나 요가 합창 불화	(05)3656-6766
	부천 석왕사 수원 용주사	산악 사군자 합창 사진 풍물 다도 사경 다도 한지공예 외국인한글교실 요가	(06)2223-3168 (06)2362-9944
인천	용화선원	선단공 수채화 한국무용 리본아트 프레스플라워 연필초상화 선물포장 힐트 도예 꽃꽂이 은공예 다도 비즈공예 킬라믹스 중국어 단소 등	(03)1452-1603 (03)2663-7771 (03)1234-0040 (03)2675-2796

謹賀新年

佛紀 2551年

#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 옥천범음대학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3-9450

(재)대한불교조계종

## 안국선원

“좋은 인연입니다”

불기 2551(2007)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